

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4. 19.(금)

「의료개혁특별위원회」 다음주 첫 회의 개최,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

- 한덕수 본부장 주재 「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」 회의 개최 -

정부는 4월 19일(금) 14시 「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」(본부장: 국무총리)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▲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▲의사 집단행동 현황 ▲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.

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

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,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.1% 증가,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.7% 증가한 90,815명이다.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,871명으로 전주 대비 1.9% 증가,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,965명으로 전주 대비 0.8% 감소했다.

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(97%)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·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.6% 감소했다. 4월 18일 27개 중증·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 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.

②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

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「의료개혁특별위원회」(이하 ‘특위’라고 한다)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.

특위는 ▲ 민간위원장 ▲ 6개 부처 정부위원 ▲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,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▲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, ▲ 수요자단체 5명, ▲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.

특위에서는 ▲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, ▲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, ▲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

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, ‘동맹휴학’은 허가된 바 없었다.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,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, 집단행동인 ‘동맹휴학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.

※ 4월 18일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, 누적 총 10,623건(재학생의 55.2%), 휴학 허가 1개교 1명

한덕수 본부장은 “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,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”라며 “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공동>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성현국 (044-200-2336)
	사회복지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이혜빈 (044-202-2289)
	보건복지부	책임자	과 장	유정민 (044-202-1600)
	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	담당자	서기관	이관형 (044-202-1602)
		담당자	사무관	신현준 (044-202-1605)